

■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첫번째 무대

쉬운 곡해석, 귀에 '쑉쑉' 감동 '두배'



'아는 만큼 들린다'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포럼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심인택)의 제70회 정기연주회는 새삼 '해설'의 힘을 확인시켜준 시간이었다. 이날 공연은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예술포럼(관장 유종성)이 광주문화예술포럼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첫번째 무대.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공연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린 곳은 날씨가 예도 불구하고 광주문화예술포럼 소극장은 공연 한 시간 전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해설자로 나선 주인공은 최종민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구수한 입

동국대 최종민교수 장르마다 깊이있는 해설

아리아·쑈대머리 등 국악 매력 청중 사로잡아

담으로 국악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도사이자 국악해설의 달인으로 불린다. 전남대 국악학과 창설의 주역이었으며 지난해 임방울국악제의 심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명작·명곡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최 교수는 관현악, 거문고 협주곡, 플루트협주곡 등 레퍼토리가 바뀔 때마다 특유의 감칠맛나는 말솜씨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오늘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레퍼토리가 대급협주곡 '하늘소리 청성' 등 창작곡이어서 다소 낯설겁니다. 국악의 음역 가운데 하나인 청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거예요. 잔잔한 바람소리를 연상케 하는 대급과 이 바람이 하늘로 퍼져가는 듯한 관악기, 그리고 마치 땅위를 달리는 듯한 높은 음의 현악기가 어우러지는 리듬의 강약을 따라가면서 감상해보세요."

다른 음악회에서는 접하기 힘든 친절 한 해설 때문인지 관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이어지는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거문고 협연 서덕은 시립국악관현악단)와 플루트 협주곡 '무용환상곡'(플루트협연 이현경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공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K팝열풍과 한국 남녀 성악가들의 차이코프스키 콩쿨 1위 뉴스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재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만 한국사회가 이들 서양음악에는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정작 우리 음악의 우수성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한국의 음악인들이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그 '뿌리'는 국악의 '유전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우리 음악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문화주권'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날 공연의 절정은 마지막 곡인 '쑈대머리'(소리 조혜리 광주시립국악단)였다. 임방울 명창의 '남버1'인 쑈대머리와 작곡가 김선씨와의 아리아 '사무치게 그리운 날' '그리운 사람이여' 등은 관소리와 현대적인 국악연주가 빛낸 감동의 무대였다. 평소 대중가요에 익숙했던 관객들은 조씨의 애절하면서도 절제된 국악아리아의 색다른 멋에 "나는 가수다"의 청중평가처럼 큰 박수를 보냈다.

최 교수는 "광주 관산 출신인 임방울 국창의 '쑈대머리'는 일제 말 조선뿐 아니라 만주·일본에서 앨범120만장이 판매된 '국민가요'였다"면서 "국악의 고장인 광주 사람들이 우리 가락을 애창곡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함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찾은 이정화(46·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평소 국악은 어렵고 낯설다는 선입견 때문에 자주 접하지 못했다"면서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감상하니 한결 친숙하게 느껴져 즐거웠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70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6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포럼 소극장에서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진으로 보는 광주 대중음악

문화재단, 12~20일 가수 한보리 노래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광주 대중음악의 역사. 광주문화재단은 12~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대중가수 한보리의 악보와 관련 사진을 전시하는 '노래전시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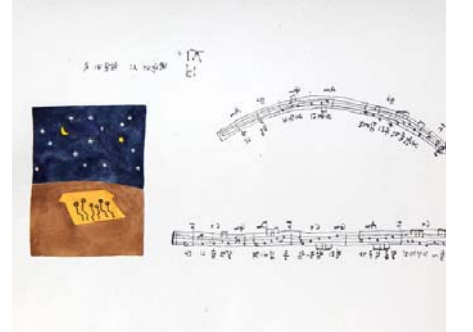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한보리가 담백갑 속 은박 종이에 나뭇가지로 스케치하거나 빈 종이 위에 펜으로 오선지와 음표를 그려 넣은 악보 등 처음 악상이 떠올랐을 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손안보들이 전시된다.

또 전시 기간 매일 음악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전시장 안에 그가 평소 창작 작업을 하는 네 평 남짓한 공간을 재현해 놓고, 곡이 쓰여지는 환경과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는 16일 오후 4시에는 특별 미니콘서트 '달팽이의 노래'를 연다. 한보리·박양희·오영복·이진진씨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노래를 들려준다.

한편 한보리씨는 광주의 대표적인 포크 음악 단체 '꼬뚜메'를 창단했고 '내 아내는 우뚝을 좋아해' '소를 찾아서' '한보리의 험령한 포앵송' 등의 음반을 발표했다. 또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앵콘서트' '시 하나 노래 하나' 등 시인들과 함께 시를 노래로 만드는 일을 펼쳐왔다. 문의 062-670-746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악보'

극단 청춘 '유미래 실종사건' 공연

23일까지 매주 목·금·토 전용극장 '통'

광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청춘은 지난 2월 전용극장인 극장 '통'을 개관했다. 광주시 동구 광주세우서 맞은편에 자리잡은 '통'은 8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연극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행사들을 선보이는 중이다.

정식 개관작으로 '버스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렸던 청춘이 이번에는 반전이 돋보이는 작품 '유미래 실종사건'을 무대에 올린다. 23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8시.

유형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 박은지가 업소 폭력배들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유미래는 2년간 숨어 지내며 정신과 고통을 당하다 결국 경찰서를 찾게 된다. 담당형사인 장나복은 피해자의 과거를 밝혀나가고, 동시에 정신과 의사

장영숙은 살해 사건의 목격자인 유미래의 심리를 파고들어 간다.

극이 전개될수록 이야기는 살해용의자에 대한 추적에서 '박은지-유미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 것인가'로 전환되며 긴장감이 높아진다.

우여곡절 끝에 용의자 몽타주와 살해 현장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면서 살해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즈음, 또 다른 사람의 방문으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게 되는데...

이지홍씨가 극본을 썼으며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온 원광연씨가 연출을 맡았다.

극단 대표 오설균씨를 비롯해·문진희·김은미·채희영·황민형·송고은·장명진씨 등이 출연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티켓 가격



격 2만원. 카페(cafe.daum.net/cctheater)를 통해 예매하면 30% 할인 혜택과 팬플릿을 증정한다.

한편 극단 청춘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부극단 단원도 모집 중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위, 대학생 '컬처 메신저' 모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가 오는 20일까지 문화예술 관련 소식을 전달할 대학생 서포터스인 '컬처 메신저'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컬처 메신저는 문화예술 사업현장을 취재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선발 인원은 10명이며, 휴학생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매일 소정의 활동비와 취재명함, 문화예술관련행사 참가자격 부여 등 특전을 받는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위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60-4500. /연합뉴스

문화교류재단, 23~24일 '고구려 문화탐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은 오는 23~24일 충주, 단양 일대로 1박 2일 테마여행-고구려 문화탐방을 떠난다.

이 곳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을 벌인 중심지로 이번 탐방객은 충주에 있는 국보 205호 증원고려비와 봉황리 마애불상군, 탑골리 칠층석탑, 충주박물관, 누암리 고분군, 탄금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단양지역에 있는 온달관광지(온달산성, 온달동굴, 고구려전시관)와 국보 198호인 신라단양적석비도 탐방할 계획이다. 19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http://www.rcfe.or.kr)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8만5000원.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p>상무점</p> <p>1관 트랜스포머3 (12세)</p> <p>2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p> <p>3관 트랜스포머3 (12세)</p> <p>4관 트랜스포머3 (12세)</p> <p>5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p> <p>6관 트랜스포머3 (12세)</p> <p>7관 트랜스포머3 (12세)</p> <p>8관 트랜스포머3 (12세)</p> <p>9관 고녀석맛나겠다 (전세)</p> <p>10관 씨니 (15세)</p> <p>라뉴업 오붓가설 BIG EVENT 5000명 성원의 경쾌한 성대 합창과 콜롬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동영안 경품이 행방</p> <p>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오밤최대주장 / www.cinuso.co.kr</p> <p>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p>	<p>하남점</p> <p>1관 트랜스포머3 (12세)</p> <p>2관 트랜스포머3 (12세)</p> <p>3관 트랜스포머3 (12세)</p> <p>4관 씨니 (15세)</p> <p>5관 고녀석맛나겠다 (전세)</p> <p>6관 초민망한 능력자들 (15세)</p> <p>7관 트랜스포머3 (12세)</p> <p>8관 쿵푸팬더2 (전세)/풍산개 (18세)</p> <p>9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p> <p>10관 트랜스포머3 (12세)</p>	<p>MEGABOX</p> <p>M관 트랜스포머3 (12세) 최고급관</p> <p>2관 트랜스포머3 (12세)</p> <p>3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8세)</p> <p>4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8세)</p> <p>5관 트랜스포머3 (12세)</p> <p>6관 씨니 (15세) / 풍산개 (18세)</p> <p>7관 트랜스포머3 (12세)</p> <p>8관 쿵푸팬더2 (전세)</p> <p>9관 트랜스포머3 (12세)</p> <p>10관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15세)</p> <p>11관 트랜스포머3 (12세)</p>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CINUS</p> <p>1관 트랜스포머3 (12세)</p> <p>2관 트랜스포머3 (12세)</p> <p>3관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15세)</p> <p>4관 씨니 (15세)</p> <p>5관 풍산개 (18세)</p> <p>6관 트랜스포머3 (12세)</p> <p>7관 트랜스포머3 (12세)</p> <p>8관 쿵푸팬더2 (전세)</p> <p>색깔있는 영화한편 *www.cinuso.co.kr</p> <p>씨너스전대대D(4K)상영!!</p>
--	---	--	--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